사이영상 고비 넘긴 류현진… 무실점 호투

쿠어스필드서 6이닝 무실점
평균자책점 1.66으로 낮춰
"선발투수라는 생각 지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2019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3회에 힘껏 공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연합뉴스

사이영상을 노리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최대 고비를 넘겼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7회 말 페드로 바에스와 교체돼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평균자책점을 1.74에서 1.66으로 낮췄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1점대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이 유일하다.

올 시즌 다저스의 쿠어스필드 원정은 이번 3연전이 마지막이다. 이전까지 쿠어스필드에서 통산 1승 4패, 평균자책점 9.15로 부진했던 류현진에게 이날 경기는 사이영상 도전에 최대 고비였다.

류현진은 6월 29일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 타선을 맞아 4이닝 동안 홈런 3개를 맞는 등 9피안타 7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그전까지 1.27이었던 평균자책점은 1.83으로 치솟았다.

류현진이 만약 이날 쿠어스필드를 또다시 극복하지 못하고 부진을 되풀이한다면1점대 평균자책점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자인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에게 이닝과 탈삼진에서 뒤지는 류현진에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지키는 것만큼 의미가 큰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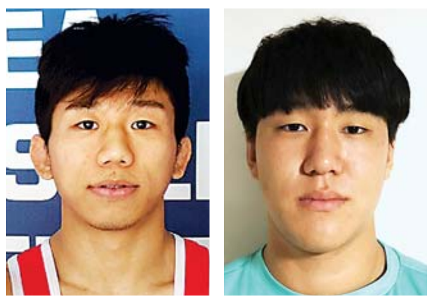
류현진은 눈부신 호투로 평균자책점을 오히려 더 낮추며 동양인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캘리포니아 지역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류현진은 경기 후 "쿠어스필드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닝을 막는 데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선발 투수라는 생각을 지웠다"며 "그저 마운드에 올라 이닝을 안전하게 막겠다는 생각만 했다.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 송현식·이민호 전국레슬링대회 금

대통령기 시·도대항 레슬링
제주선수단 금 1·은 1·동 2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제주도청 송현식(왼쪽)과 제주고 이민호(오른쪽) 선수. 사진=제주도레슬링협회 제공

제주도선수단이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제주도레슬링협회는 지난달 24~30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제주도청이 금 1·은 1·동 2, 제주국제대학교가 동 2, 제주고등학교가 금 1개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송현식(제주도청)은 이번 대회 남일반부 자유형 61kg 이하급 결승에서 최승민(구로구청)을 상대로 8-0의 부상기권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남일반부 자유형 97kg 이하급의 김리(제주도청)는 4강에서 박철웅(포항체육회)에게 부상기권패해 3위를 기록했다.

유재은(제주도청)은 여일반부 자유형 72kg 이하급 결승에서 윤도경(경북체육회)에게 아깝게 부상기권패하며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여일반부 55kg 이하급의 이현정(제주도청)은 4강에서 이신혜(서울중구청)에게 0-8로 폴패를 당해 3위를 기록했다.

남대학부 그레꼬로만형 97kg 이하급의 박준우(제주국제대)는 4강에서 이동재(조선대)에 2-6으로 판정패해 3위에 머물렀다. 남대학부 자유형 97kg 이하급의 권도영(제주국제대)도 4강에서 반창환(영남대)에 2-3으로 판정패하며 3위로 마쳤다.

남고부 그레꼬로만형 97kg 이하급의 이민호(제주고)는 결승에서 윤동현(광주체고)을 상대로 12-6의 판정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2019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12일 개막

18일까지 20개팀 참가

2019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가 오는 12일 강창학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영국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카디프시티, 독일 도르트문트와 아우쿠스부르크, 브라질 팔메이라스,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 미국 LA 갤럭시 등 해외 명문 축구구단 유소년팀이 출전한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시마앤틀러스, 감바오사카, 도쿄베르디, 요코하마에프씨(FC) 일본 4개 팀, 상하이 선화 중국 1팀이 출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유나이티드,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성남에프씨(FC), 부산아이파크, 수원에프씨(FC), 전주시민축구단, 대병중학교 등 총 20개팀이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조 추첨은 정식 대회 전날인 11일 열릴 예정이며, 4개 팀씩 5개조로 나눠 조별리그가 진행된다.

대회 결승전은 18일 강창학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우승과 준우승, 3위 입상 팀과 대회 최우수 선수(MVP)에게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임성재, 한국 선수 최초 PGA 투어 신인상 가능할까

울프·모리카와 등 5명 경쟁
역대 페덱스컵 1위 모두 수상

한국 선수 최초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 수상은 가능할 것인가.

2018-2019시즌 PGA 투어 일정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임성재(21·**사진**)는 올해 신인 가운데 페덱스컵 랭킹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줄곧 유지하며 '신인상 1순위'로 꼽혀 왔다.

PGA 투어 2018-2019시즌은 1일 개막하는 윈덤 챔피언십으로 정규대회를 마무리하고 8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이 이어진다.

PGA 투어 신인상은 상금이나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즌에 최소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투어 멤버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신인 가운데 페덱스컵 25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3위가 최고 성적이고 31개 대회에 나와컷 통과 22회, 10위 내 입상 6회 등 모두 신인 가운데 최다를 기록 중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투어 동료 선수들의 투표가 임성재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즌 막판 변수가 생겼다. 올해 6월에야 프로로 전향한 매슈 울프(20)와 콜린 모리카와(22·이상 미국)가 나란히 한 차례씩 우승을 달성하며 신인상 레이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PGA 투어에서 신인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즌에 10개 대회 이상 출전하거나 정규시즌이 끝난 시점에 페덱스컵 순위 125위 안에 들어야 한다.

울프와 모리카와는 모두 6개 대회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현재 페덱스컵 순위가 각각 72위(울프)와 46위(모리카와)로 125위 이내 진입을 확보, 윈덤 챔피언십이 끝나면 신인상 레이스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다.

페덱스컵 순위로는 임성재가 가장 높지만 올해 우승이 없다는 사실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신인상 경쟁자 가운데 올해 우승이 있는 선수는 울프, 모리카와 외에도 캐머런 챔프, 애덤 롱, 마틴 트레이너(이상 미국) 등 5명이나 된다.

그러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인상 후보 가운데 플레이오프까지 마친 시점에 페덱스컵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신인상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연합뉴스

정현, 청두 챌린저 8강 진출

부상을 털고 돌아온 정현(166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저(총상금 13만5천400달러) 8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1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16강전에서 우디(352위·중국)를 2-1(7-6<7-4> 6-7<6-7> 6-3)로 꺾었다. 1, 2세트 모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며 우디와 1-1로 팽팽히 맞선 정현은 3세트에서 뒷심을 발휘해 2시간 43분 동안 접전의 승자가 됐다.

10개의 서브 에이스를 앞세워 우디(5개)를 물리친 정현은 8강에서 남지성(292위·세종시청)과 맞붙는다. 남지성은 16강에서 데인 켈리(475위·호주)를 2-0(7-6<7-1> 6-3)으로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